

“퍼주기 아닌 부가가치 창출하는 일자리 정책을”

도, 어제 민선8기 일자리정책TF 회의... 대책 등 논의
공공부문 채용정보 제공 개선 방안 등 개선책도 모색
오 지사 “기업 연계로 좋은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축”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숫자에 집착하는 이른바 ‘퍼주기 식’ 일자리 정책 추진을 경계해야 한다며 기존의 도정 정책에 쓴소리를 내뿜었다. 오 지사는 “일자리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산업 육성 전략에 있어 ‘기업’에 대한 연계 지원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농업인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일자리 관리 전담팀(TF)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민선8기 일자리 정책 방향과 과제 ▷도·공공기관 정기 채용계획과 정보제공 관리 ▷일자리 미스매칭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를 주재한 오영훈 도지사는 일자리 정책 추진에 있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키워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통상 일자리 대책 이야기할 때 몇 년까지 수조 원을 투입해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좋은 일자리에 대한 내용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일종의 단순 아웃바이트 성 일자리까지 포함해 숫자를 맞춰 넣는 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있다.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그래서 민선8기 도정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성장기업 20개 유치다. 기업 공개는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

하고, 일정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상장이 어렵다”며 “기업에 대한 지원과 연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일자리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지사는 취업 교육과 채용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도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체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제주에선 구인 기업과 구직자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미스매칭이 총 1785명(지난해 4분기 기준)에 달하고 있다.

이날 도는 ‘정보의 부재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칭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 내용을 보면 ▷채용대행사 비스 활성화 ▷AI시스템 워크넷을 활용한 맞춤형 매칭 ▷상설채용관 운영 및 화상면접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중 오영훈 지사는 제주고용센터 소재 ‘상설채용관’을 꼽으며 “구인·구직자가 필요할 때 상설채용관을 찾아 일자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주 인원을 배치하는 등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 지방공무원 등 공공기관 채용 시 정보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제주도는 도내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통합 정기 채용을 추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매년 12월 말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다음해의 종합적인 채용 계획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탐스럽게 만개한 백서향 23일 제주시 한경면 저지곶자왈에 향기가 천리까지 간다는 순백의 백서향(제주도 기념물 제18호)이 만개해 탐방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강희만기자

10만 크루즈 손님맞이 준비 한창

올해 크루즈 51척·승객 10만명 제주 방문 예정
도, 상권 연계 프로그램 운영 경제활성화 유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지난 3년여 간 입항이 제한된 크루즈 선 기항이 3월부터 본격 재개됨에 따라 크루즈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오는 3월 16일 아마다에아호(승객 600명, 2만9000t)의 제주항 입항을 시작으로 19일 강정민군복합항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승객 3000명, 11만5000t)가 들어오는 등 올해에만 총 51척(제주항 22척, 강정민군복합항 29척)·10만 여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원활한 크루즈선 입항과 여행객 입출국 수속을

위해 지난 6일 세관·출입국·검역(CIQ)기관을 비롯해 경찰청,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제주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강정민군복합항은 준공 이후 2019년 2회 입항 후 현재까지 입항 실적이 전무했으나 지난해까지 해외선사 등을 대상으로 기항 유지를 꾸준히 홍보한 결과, 올해 국제 크루즈선 29회 입항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크루즈선 입항이 지역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크루즈 관광객을 지역 상권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강정민군복합항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간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서귀포 원도심과 연계한 기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은 “크루즈 여행객의 원활한 입출국 수속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는 한편, 크루즈산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성화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서부중 2027년 개교 불투명... 4면 / 제주해녀 매년 200명 감소...5면

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도, 준비상황 중간 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가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23일 도청 2층사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창범 4·3유족회장,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 홍성수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선 4·3연구소장을 비롯해 실·국 및 행정시와 4·3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7일 수립된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기관·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행사장 준비, 홍보, 교통관리, 안전 등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는 “이번 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은 민선8기 첫 추념식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창범 4·3유족회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추념식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첫 추념식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4·3기록물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역사이자 기록으로 정립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런 의미가 올해 추념식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하는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은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재단·추념광장에서 거행된다. 이번 추념식에서는 오전 10시50분부터 11시30분까지 식후행사로 누구나 함께 하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제를 콘셉트로 4·3의 세계·미래화의 의미를 담아 낼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HYUNDAI Bluehands

제주공항현대서비스

신차보증수리 및 A/S

대표 김봉옥

존경하는 고객님께 안녕하십니까?
계묘년 새해를 맞아 고객님 회사와 가정에 기쁨과 행운을 드리는 마음으로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려야 도리인줄 알지만 지면으로 인사 올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객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으로 보살펴주시는 덕분에 1968년 자동차 정비공으로 시작하여, 55년이 지난 2023년 지금 2,400평, 사원 45명, 자동차 40대를 동시에 정비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 수 있었습니다. 세기자동차공업사를 성장,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고객님의 은덕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으며, 사후(친신, 함신, 양신)으로 오직 의감을 걷는 동안 고객님께서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고객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큰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현대자동차 기술 지원을 받게 되는 **제주공항현대서비스**로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전기차, 수소차를 비롯하여 고객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2인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승용차 등 전 차종 40대 기량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시설과 기계장비를 비치하였습니다. 특히, 정비와 수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오전 09시~오후 06시)**까지 자동차 검사는 **평일 오전 08시 ~ 오후 06시,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검사 가능합니다. 끝으로 제주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으로 자동차 도장을 고급 수유성 도장으로 제주 환경 정화 참여 업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객님,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고객만족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활동 모금, 적십자 레드크로스아너스 참여는 물론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경영인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고객님 회사와 가정에 해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공항현대서비스 대표 김봉옥 올림
(구 세기자동차공업사)

현대·기아·GM·쌍용·삼성·외제차 등 2.5t 이하 모든 차량 수리가능

1급종합정비·검사 지정업체
(판금, 도장, 보증수리, 일반수리)

HYUNDAI Bluehands
제주공항현대서비스

제주시 서광로 77(용담2동)
T. 064)743-9114, F. 064)713-9117
H·P 010-8207-0856